성(性)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알고 있니? 알고 싶지!

일시: 2001년 2월 14일 오후 2시

장소: 백주년기념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3.8 세계여성의 날

지금으로부터 91년 전인 1908년 3월 8일,
먼지와 악취가 가득찬 지하실에서
빵대신 먼지를 먹으며
출입문도 잠긴 채 하루 14시간씩 일해야 했던
미국의 섬유노동자들.
급기야 트라이앵글이라는 한 피복회사의 여성노동자 146명이
불에 타죽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으며
드디어 분노에 찬 여성노동자들이 일어섰다.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임금을 인상하라!"
루투거스광장에서 무장한 군대와 맞서며 외쳤던
인간으로써, 그리고 노동자로써 피맺힌 절규였다.

– 3·8 세계 여성의 날 90주년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편집비디오 대본 중에서 –

2년 후인 1910년 세계 진보적인 여성노동자들은 코펜하겐에서 3·8대회를 갖고 '미국 섬유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된 3·8시위를 매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매년 3월 8일이 되면 전세계의 여성노동자들은 집회와 기념식 등으로 이 날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있다./ 없다./ 아니다, 있다.

"있다."는 진실. "없다"는 거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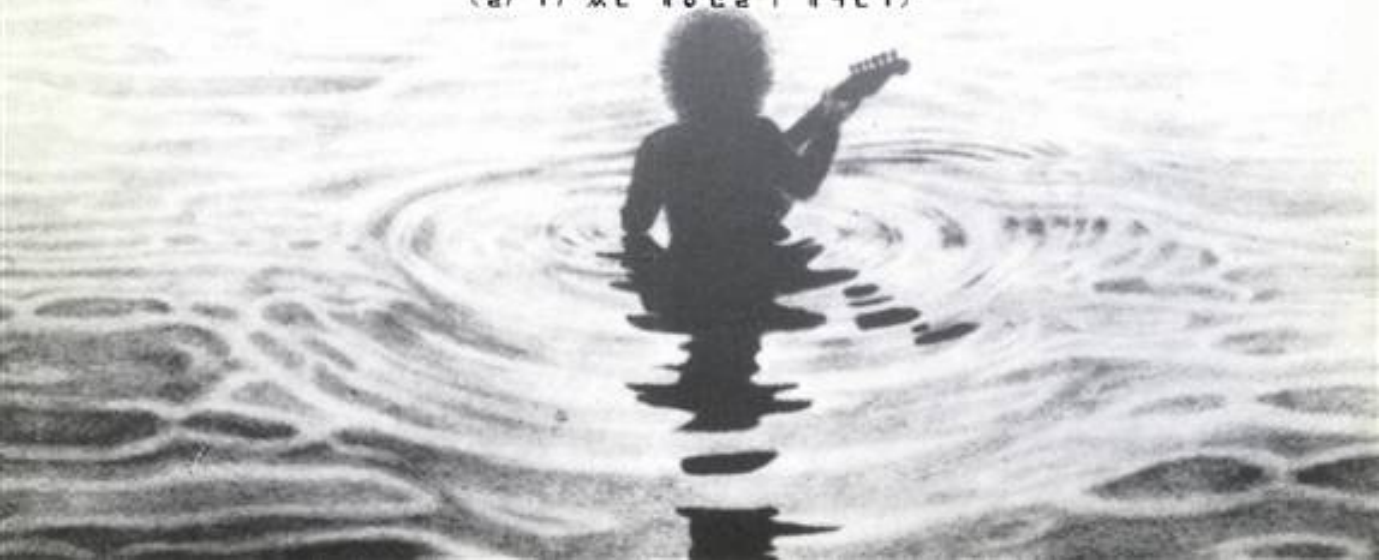
여성임이 즐거울 수 있는 세상.
여자로서의 나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당신의 뇌주름 속에
사소한 일상의 거리낌 속에
대책없는 상상력 속에..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수선스런 움직임.

'불가능한 것'은 아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죠.

〔별/ 수/ 있는 세상만들기 대책본부〕



별 수 있/다!
제13대 총여학생회

"다시 태어나면여자나 남자, 뭘로 태어나고 싶어?"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 말에 선뜻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라고 말하는 여학우가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해집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 여성으로서 자기의 삶이 '별 수 없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고, 하고 싶은 말을 선뜻 할 수 없었고, 불쾌한 일들을 겪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여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여학우들은 이미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것,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소리 없는 외침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단지 방법을 잘 몰라서 쉽게 포기하게 되고, 생각으로만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고, 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속의 외침들을 밖으로 꺼내어 속 시원히 이야기 해봅시다.

그 동안 주춤거렸던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통쾌하게 해봅시다.

맘에 들지 않는 것들을 화악~ 바꿔버립시다.

'여자가 별 수 없지' 가 아니라 여자라서 '별 수 있다' 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여성으로서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즐거운 세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별 수 있는 삶, 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총여학생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 ☆ 13대 총여학생회 별 수 있/다.

총여학생회는 학생회관 3층에 있습니다.
전화 : 2123-3645 나우누리ID : 연세총여
홈페이지 : www.ysfem.or.kr

홈페이지 소개

총여학생회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단지 총여학생회의 일방적인 떠벌림이 아닌, 여러분들과 주고받는 소통과 논쟁을 통해 더 나은 여성주의를 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홈페이지는 꾸며질 것입니다.

볼/수/ 있는 홈페이지가 떴다!!~~

File Edit View Go Communicator Help

Bookmarks Location: What's Related

여자들만의 방 학내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성(性)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고, 고민들을 털어놓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성전용 익게를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불타는 감자 학내외의 이슈들이나 여성들의 일상적 삶에 대한 꺼리들을 붙이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왓 위민 원트 총여로 신고하는 불편 사항들, 문의나 건의 등을 즉각 즉각 처리합니다.

보물창고/링크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퍼 갈 수 있게 꽉꽉 보물들을 채워놓고 각종 사이트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Document: Done

행사를 준비하며

3년여의 기간동안 대학이라는 공간을 경험하면서 '어, 내가 생각했던 대학이라는 곳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몇번 있다. 특히, 그 공간의 누구에게나 자유와 낭만이 넘칠 것이라 믿었던 대학이라는 곳이 너무나 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이라고 느낀 순간 나의 환상은 처참해 깨져버렸다.

왜? 왜, 대학이라는 공간마저도 성폭력, 남성중심성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간단하다.

한국사회에서처럼 초등학교 이후부터 여자와 남자를 갈라놓는 이상한(!) 제도 속에서 양성이 서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지만 이는 대학이라는 공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록 여성과 남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긴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기에 서로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고, 혹은 성폭력적인 문화들을 그대로 답습해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이번 "성 알고 있니? 알고 싶지?" OT 행사를 통해 양성이 자신의 성 뿐만 아니라 서로의 성에 대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이라는 공간이 양성 모두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오리엔테이션?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0~2:15	총여 소개 총여가 뭐지? 뭐하는데야? 총여는...
2:15~2:25	선배들의 인터뷰 영상물 보기
2:25~3:30	'성(性)' 알고 있니? 알고 싶지! '성' 함께 이야기해보자! 삼색토크' 바로 그 분 이숙경 선생님과 함께 '원색토크'를.
3:30~4:00	'I will' 공연 '오홋~' 멋지다! 여성주의 힙합 댄스 댄스!! 나도 출래~

강연자 소개

이숙경 선생님은요,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 시립대 강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웹진 '아줌마'의 편집장으로 계십니다.
SBS '아름다운 성(性)'에 패널로 출연하셨고,
현재는 'EBS' 삼색토크의 패널로 출연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성지식 테스트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지식을 테스트 합니다.
O,X로 답하는 10문제로 되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 문 제 1 | 사정액의 분출거리는 정력과 관계가 있다.

▶ 정답은 ×

말도 안되는 소리죠. 오줌 멀리 눈다고 정력이 세졌습니까? 사정을 할 때 정액이 분출되는 거리는 신체적인 구조와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하긴, 정력이라는 말부터가 좀 우스운 말이긴 합니다.

| 문 제 2 | 강간을 당했을 때는 우선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

▶ 정답은 ×

절대로 안됩니다. 물론, 강간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과 불결한 느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성폭력 상담소 같은 공식적인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일단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끊고, 가해자의 명백한 증거물인 정액이나 체액을 채취하는 등의 일을 해두어야 합니다. 물론, 성병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산부인과에서 검사해야합니다. 그런 일을 먼저 하신 후 몸을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명심하세요. 나중에 어떤 행동을 취하든 간에, 성폭력의 증거물은 여러분을 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피해자의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리고, 사실 성폭력의 경우 보상이란 것이 불가능한 끔찍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제2-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제 3 | 여성의 80%가량이 자위를 한다.

▶ 정답은 O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사실 남자들과 비교해서 여자들끼리는 이런 얘기 거의 안하니까 잘 모를 뿐이지요. 물론 남성들의 비율(95%)에 비해서 낮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자위를 하며, 그중 85%가 오르가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의 여성들은 남성과의 성행위보다 오히려 자위를 선호하기도 한답니다.

| 문 제 4 | 생리 중에는 섹스를 해도 임신이 안된다.

▶ 정답은 ×

생리중에 섹스를 해도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리란 난자가 수정이 되지 않아 소멸된 후 임신을 대비해 비축해 두었던 자궁벽의 혈액을 쏟아내는 것이므로(즉 난자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임신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기간이 길고 생리주기는 짧은 여성이나,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 경우 생리 중에 난자가 배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자가 5일 가량이나 생존할 수 있으므로, 생리중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 문 제 5 |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으로 전체 인구 중 약 5%의 사람이 동성애의 경험이 있다.

▶ 정답은 x

다음 두가지가 틀렸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이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동성애 경험이 5%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학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학습적, 환경적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학설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는 유명한 성보고서인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기 이후 오르가즘을 동반한 동성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37%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고, 마스터즈와 존스의 연구결과에서도, 순전하게 이성애적 관계만을 가졌던 사람이 50%, 순전히 동성애적 관계만을 가졌던 사람이 4%이고, 나머지는 동성과 이성 모두와 성적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었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양성애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문 제 6 | 연인사이나 부부사이에서의 성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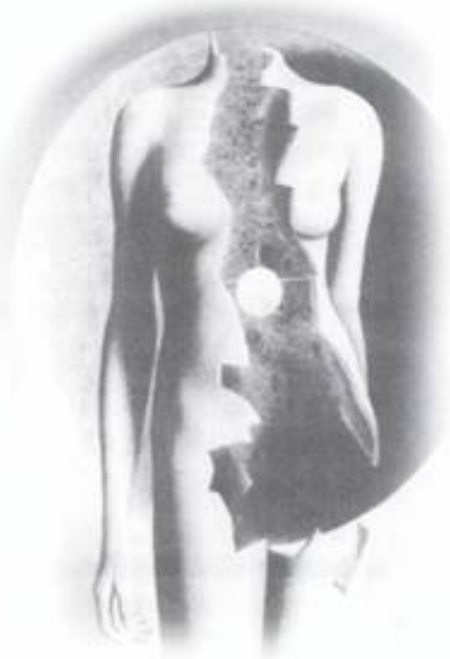
▶ 정답은x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는 성폭력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일지라도 성폭력은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무리 성적 관계가 법적으로 공인된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맺는 것은 강간에 해당합니다. 섹스와 섹스에 준하는 모든 성적 행동, 또는 더 넓혀서 개인의 육체에 가하는 모든 행위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연인사이에 일어나는 강제적 성관계를 데이트 강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일지라도 폭력은 명백한 폭력이며,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을 때는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세요. 그리고,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맺는 것은 폭행임을 상대방에게 확실히 주지시키세요. 그것이 여성과 남성간의 올바른 성적 관계맺음의 출발입니다.

| 문 제 7 | 정관 수술이 난관 수술보다 간편하다.

▶ 정답은 O

쉽게 생각해도 알 수 있듯이, 남자 꺼는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수술이 간편하데요. 한 10분밖에 안걸리고, 돈도 얼마 안든대요. 나중에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도 쉽구요. 그런데, 난관수술은, 여성의 몸 속 깊은 곳을 건드려야하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임신을 하기 위해 원상태로 돌릴 때도 어렵고, 영구불임이 되기 쉽답니다. 그러니, 반영구적인 피임을 원하시면, 남자들보고 정관수술 하라 그러세요. 성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 문 제 8 | 여성은 일반적으로 삽입 성교시 가장 큰 쾌감을 얻는다.

▶ 정답은 ×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삽입이 항상, 또 모두에게 가장 큰 쾌감을 주는 행위는 아닙니다. 각종의 성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클리토리스가 자극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 들은 성기 이외의 부분만의 자극을 통해서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정반대입니다. 남성들은 모든 자극이 성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성기 이외의 부분을 통해서 성적 만족감을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 문제 9 |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도 시판되고 있다.

▶ 정답은 ○

사후피임약 또는 응급피임약이란, 수정이 되었더라도, 72시간이내에 복용하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해서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약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한때 고등학교에서 양호선생한 테 사후피임약을 나눠주도록 하기도 했었답니다.(근데, 법원의 반대로 무효화되었다는군요.)혹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도 판매하기는 하는데, 각종의 부작용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꼭 병원에 가셔서 구입하셔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경우라면 성폭력 상담소 같은 곳에 꼭 도움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제 10 | 남자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본능이다.

▶ 정답은 ×

말도 안되죠. 인간에게 참지 못할 본능 같은 것은 없습니다. 특히, 여자는 참을 수 있는데, 남자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본능이란 더더욱 없습니다. 채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식욕 같은 경우에도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로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남자는 성욕을 참을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은 남성들의 성폭행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짓된 논리일 뿐입니다.

성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셨나요? 이런 지식은 여러분의 생활을 보다 안정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어? 다 알고 계셨다구요? 그렇다면 이제 실천이 문제겠네요. 아시는 만큼만 실천하신다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게 생각만큼 잘 안되는 거 아시죠? 이제, 실천이 문제입니다!!!

(이 글은 여성주의 웹진 언니네를 참고하였습니다.)

chickclick

WWW 따따따. 들어가보세요!

성폭력 상담기관

■우 한국 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여성의 전화"와 함께 성폭력 상담과 해결을 위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유용한 성폭력 관련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음.

■우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hotline.peacenet.or.kr/
한국 여성의 전화 홈페이지로 여성에 대한 폭력, 성차별, 인권 문제를 포함한 여성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법 및 상담기관의 연락처를 안내

■우 사이버 성폭력 피해신고센터 www.gender.or.kr
국내 최초의 사이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로 정부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를 통해 구성된 정부기관

성관련 강의 현황, 여성관련 교수 연구 현황 소개

■웹진아줌마 www.ajoomma.net/
여성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섹션신문 아줌마 웹진으로 칼럼, 인터뷰, 취재기사, 만화, 정보 등 수록.

■한국 여성 민우회 www.womenlink.or.kr
가족과 성, 직장, 취업등 분야에 대한 온라인 상담과 각 주제별 여성관련 자료모음을 제공하고 있는 곳

여성주의 문화,운동 사이트 소개

■언니네 www.unninet.co.kr
20대 여성들을 위한 여성 전문 웹진으로 언니네광장, 비디오가게, 아작네 AZAC, 등급외 전용관, 오빠네세탁소 등으로 구성된 사이트.

■달나라 딸세포 dalara.jinbo.net
여성운동을 다루는 페미니즘 웹진으로서 2세대 여성운동, 문화평론, 성교육 자료, YH여공 관련 글 수록하고 있는 곳 .

■119 직녀 수다넷
www.sudanet.co.kr
-2030 일하는 여성, 직장여성을 위한 119 사이트로 직녀로 살아가기, love your life, cafe, sex 등 여성들의 수다로 풀어가는 인터넷 웹진 직녀세상 수다넷.

■이화여성학 ews.ewha.ac.kr/
한국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학센터, 여성신학연구소, 여성학과의 소개, 여성학 자료 검색, 국내외 여성관련 사이트 정리, 국내 여성관련 학회정보, 이화여대의 여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antihoju.jinbo.net
반여성적인 호주제 폐지를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 호주제 폐지와 그에 따른 법적인 사항들, 그리고 부모성 함께 쓰기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도 얻을 수 있는 곳

■일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www.kwwnet.org
한국 여성노동자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평등의 전화 등을 운영하면서 직장에서의 성희롱이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상담과 직업훈련과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

■사비즈 www.sabiz.co.kr
사이버 비즈니스에 관심있는 여성들뿐 아니라 일반 창업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프리워 freewar.or.kr
프리워는 지금 백조로 지내고 있거나 백조로 지낼 거 같은 사람, 여성경제 네트워크에 뜻이 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

INTERVIEW

질문???

성교육 받아보셨죠? 어땠어요?

– 그저 그렇죠, 뭐.

고등학교때꺼는 기억도 안나요.

그것도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나?

과학실 어둡게 해놓고 어려운 과학용어 들먹이며 비디오 보여준 거 기억나고요. 아, 고등학교 때는 어떤 강사가 오셔서 방송실에서 전 교실에 생중계로 한 게 기억나요. 전 항상 졸았지만, 신기하게 열심히 듣는 애들도 있었어요.

– 내 몸에 관해서나 연애 섹스에 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그런식으로 보여지는 건 별로 재미없었어요. 차라리 몰래 야한 비디오를 본다거나 잡지, 아이들이 하는 얘기로 알아가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가까이 다가오고..

대학들어와서는 생활하는 공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성에 대해 더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분위기인 듯 했죠. 단대마다도 다를꺼예요. 동아리에 따라서도. 보통 대학에서도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남자 선배들이 운 띄우고 돌려받고 그리고 그렇게 끝내요. 거기서 여자후배들은 특히 할 말이 없는 거죠.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불쾌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위치인거죠. 대학이 성에 대해 개방적인 공간인 듯하지만 보수적이고 성에 대한 이야기는 남자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그에 비해 여자들은 조금씩 소극적으로 경험으로 알아가거나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4년간의 대학생활에서 얻는게 있고 그렇지 않은게 있죠.

한 번, 문대 여성모임 모반에서.

그 때는 어눌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기회였던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분명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은 과학적인 것이라거나 딱딱하게 구사하는 말들이 자신의 성이나 몸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래서 피임의 방법으로 그렇게 콘돔 이야기 해도 대학생들도 잘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선 저도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거나 행동하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바라볼까 봐서. 저부터 스스로 접고 들어가죠.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그때, 직접 자신의 성기를 그려보기도 하고 콘돔도 직접 만져보고, 신기했죠. 피임방법도 알아보고 포르노와 관련해서 글도 읽고 자신이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 질문도 하고 자신의 성지식 수준이 얼만지 테스트도 하고.

-월경페스티발 갔었거든요.

2회째도 3000명 정도가 왔대요. 요즘 공짜 행사에 그정도 오면 굉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런 자리가 부족하고 사람들도 저마다 월경이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기관만 딱 떼어내서 얘기하지 말고 자신의 성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걸 알고 싶은 지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큰 서점에 갔었는데, 섹스북이라고 선배가 대학 와서 성교육 교재로 빌려준 책이 비닐 포장돼 있더라구요. 만19세 미만은 볼 수 없는 코너로 묶여서.

아이들 그림책을 좋아하는 데 아동코너에도 성교육관련 동화책이 있더라구요. 진작 이런게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요즘 애들은 참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난 자랄 때 그런책 구경도 못해봤는데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몸에 대한 변화와 어른이 되어가는과정 그런 것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하는 지를 간결하게 보여줬어요. 너무 좋았어요. 가식적으로 꾸미거나 한 쪽으로 편중된 시각도 없었고. 사춘기아이들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유치하게 그리지도 않았구요.

처녀들의 점심식사

연애, 섹스, 월경... 난 이렇게 생각해 너는?

연애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강박적인 것도 아니고, 불현듯 다가오는 운명도 아니고, 가을동화에서의 낭만적 사랑도 아니고, 이것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이것을 해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저러한 연애의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가져야하는 역할규범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연애는 사랑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창조하여 구상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즐거운 **섹스를** 위해서는 네 가지 용기를 가져야 한다. 원치 않을 때 거부하고 자신을 지킬수 있는 용기, 원할 때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받아 들일수 있는 용기 그리고 '순결'이나 '처녀성'이라는 애매 모호하고 신화화된 개념에 욕망을 가둬두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존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혼전순결주의자가 아니지만 '섹스'하면 원치 않는 임신이란 불안과 떼어 생각하기 어려워 실제론 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임신주기와 **피임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체외사정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남자들에게 팽배하고 피임이 파트너 서로에 대한 배려로 양쪽 모두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이 아직 흐린 현실이니까. 건강에 해롭지 않는 피임에 대한 이성파트너와의 합의 없이는 성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 같다.

월경? 매달 옵니다. 오다 안오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렇다고 매달 찾아오면 귀찮아집니다. 피곤하거나 힘들 땐 지 맘대로 오기도 하죠. 내 몸도 느끼고 있는 거겠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단한지를.. 그래서 그렇게 가끔 뜬금없이 찾아오는가 봅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여자도 남자도 대부분 하지만... 남에게는 얘기하기 쉽지 않다. 남성들의 세계에서는 남성다움과 정력의 상징으로, 하루에 몇번, 몇십번 한다는 이들을 부러움과 시기심으로 바라본다. 여자들의 자위는 묻혀져 있다. 여자가 밝히면,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찍히게 되어서인가? **자위는** 왜 우리들 얘기 속에서 부풀려지고 혹은

축소되고 왜곡될까? 그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위의 하나라고 이해하면 안될까?

복잡한 지하철에서 더듬는 손, 은근슬쩍 어깨에 올려지는 선배의 팔, 조는 여학생을 보고 "자네 업소 나가나?"하고 핀잔을 주는 교수님, '여자후배가 따라주는 술이 더 맛있다'며 술따르는 여자 취급하는 남자들, 이상한 잡지 가져와서 과방에서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는 애들, 지나가는 여자 위아래로 훑어보며 점수매기는 시선들... 이런 것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어진다면 남자들은 믿을까? 성폭력은 강간만이 아니라구요.

넌 **동성애**와 동성연애의 차이를 아니? 뭐? 그게그거 아니냐구? 에이, 잘 생각해봐. 이성에게 끌리는 사람에게 우린 이성애자라고 하지, 이성연애자라고 안하잖아. 그런데 동성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라고 하지. 한글자 차이가 별거 아닌거 같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구. '연애'라는 단어에는 상대방을 단순히 성교의 대상으로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거거든. 한마디로, 동성'연'애자들은, 변태적인 섹스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비정상적인 짐승같은 놈들이라는 뜻인게지. 이제 알겠니?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는 동성연애라는 말 속에는 사회에서 '정상'적인 관계라고 '간주'하는 이성애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하와 멸시가 담겨 있는 말이라구~

그런데..아직도 좀 찝찝한게 남아? 그럼 다음 질문들을 곰곰히 생각해봐. 이건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게 흔히 묻는 질문들의 역질문이야. 질문들을 보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감이 좀 잡힐걸~

1. 당신들은 왜 이성애자가 됐고 언제부터 이성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2. 이성과 육체적인 경험을 한번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성애자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이성애자들로 인해 AIDS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이성애자들의 섹스를 금지시켜야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봐~~

피임상식

1. 콘돔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하고 경제적인 피임법. 남자가 성교시 느낌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착용을 꺼리지만 피임의 효과 외에 성병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피임법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의사들이 피임약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미혼 여성이 부정기적인 성관계에 대비해 약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 미량이라고 하지만 호르몬제가 들어있어서 당뇨, 비만, 여드름 등의 호르몬 관계 질환의 부작용이 있어 어느정도의 위험이 따른다. 콘돔사용으로 생기는 10-15%의 피임실패율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한다면 임신의 걱정을 덜 수 있다. 그리고 자연주기법과 콘돔사용을 병행한다면 99.9%의 피임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주의 사항

1. 반드시 삽입 전에 콘돔을 착용하도록. 삽입 후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성기가 발기하면서 쿠퍼씨관에서 수 백 마리의 정자가 있는 쿠퍼씨액이 나오기 때문에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삽입 전에 착용을!
2. 반드시 구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콘돔착용시 반지나 뾰족한 손톱에 의해 콘돔이 구멍이 나지 않도록 !
3. 사정이 끝난후 남성의 성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액이 새어나오는 것을 조심!

다양한 종류(민자형, 돌기형)와 디자인의 콘돔이 소개되고 있고, 여관로비나 약국이나 편의점 섹스샵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 평균적으로 10개들이 4,000이고 기능과 디자인에 따라 가격대 다양)

피임방법, 종류도 가자가지~

피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용법이나 부작용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피임법 골라보세요. 피임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콘돔을 이외의 먹는 피임약을 포함한 모든 피임법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사와의 상의를 통해 자신의 체질에 맞게 선택해야합니다.

2. 자연주기법

자연주기법이란 여성의 생리주기를 이용하여 임신이 가능한 시기, 즉 배란기에 성관계를 피함으로써 피임을 하는 방법. 생리주기가 정확한 여성에게만 가능한 방법으로 여성의 배란 후 난자가 살아 있는 1일과 정자가 여성의 생식기내에 살아 있는 2-3일을 고려하여 배란을 전후로 한 임신 가능시기를 피하는 방법이다.

배란일 주변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질외사정을 이용하여 피임을 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 배란되는 시점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방법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

주기라는 것마저 변동될 수 있고 정충이 나팔관 내에서 살아있는 기간이 3-4일이라는 점을 가만하여 피임해야할 기간을 넉넉히 잡아

야 실패율이 낮다.

따라서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고 콘돔과 병행하여 사용할 때 보다 안전한 피임과 섹스를 할 수 있다. 배란일이라고 추정되는 시기에 배란되지만, 배란일이 아닌 시기에 배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연주기법(기초체온측정, 질로 분비되는 점액의 양상관찰)은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 방법 : 달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데 이 방법은 월경이 규칙적이어야 가능하다. 어떤 주기에 피임을 하고자 할 때 다음 주기의 월경 시작일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한 후 거꾸로 14일을 뺀 날이 배란일이다. 보통 배란은 다음 생리일 시작일로부터 14일전에 이루어 진다. 예를 들어, 생리주기가 28일인 여성의 경우, 이번 생리시작일과 다음 생리시작일의 중간정도에 배란이 이루어진다.

임신가능 위험이 높은 기간은 지난 6개월간의 월경주기 중 가장 짧은 주기에서 18일을 뺀 날짜로부터 가장 긴주기에서 11일을 뺀 날짜까지이며, 예를 들어 월경주기가 28~30일인 여성은 월경주기 10일부터 19일까지가 임신가능 위험이 높은 기간!!

3. 먹는 피임약

먹는 피임약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 성분을 가진 약으로 여성의 배란과 생리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매일 한 알씩 21일간 복용하고 7일간을 휴약하는 복용법이고, 먹는다고 곧바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획적으로 빈번한 성관계를 갖는 기혼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먹는 피임약은 일단 정기적인 성관계를 갖는 사람에게 적합한 피임법이라는 것과 피임실패율이 적은 편(2-3%)이지만 매일 약을 복용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다. 먹는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한다.

☞ 복용법 : 어떤 주기의 피임을 원할 때 그 주기의 월경이 시작되면 시작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먹기 시작해서 매일 1알씩 먹어야한다. 혹시 하루를 잊었을 경우 12시간내에 2알을 먹어야하고 2일 이상 잊었을 경우에는 피임의 실패율이 높아진다. 한 주기용을 다 먹은 후 기다리면 월경이 시작된다.

☞ 의학적 작용 : 먹는 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하고 있어서 먹으면 임신 시와 비슷한 호르몬 상태로 만듭니다. 정자와 수정될 수 있는 난자가 배란되는 것을 막고, 자궁경부를 막고 있는

피임상식

점액의 점도를 끈끈하게 유지시켜 정자가 통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정란이 착상하는데 필요한 자궁내막의 증식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피임약의 복용을 잊었을 때 일정한 복용시간에서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

-일정한 복용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이 경우 복용을 잊은 정제를 바로 복용하고 다음날부터 정한 시간에 복용을 계속하면 피임의 효과가 지속된다.

-일정한 복용시간보다 12시간이 더 지났거나, 1정이상 복용을 잊었을 때

이 경우 피임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별도의 피임이 필요하다. 복용을 잊은 정제는 버리고 그 다음 정제부터 예정대로 복용을 하면 된다. 그 포장을 모두 복용할 때까지 자연주기법이나 기초체온법을 제외한 다른 비호르몬적 피임법을 병용해야한다.

-피임약을 한 알 분실하였을 경우

만일 그 날분의 약을 한 알 분실했을 겨우 다음날 분의 약을 당겨서 복용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주기가 28일에서 27일로 하루 줄어들지만 피임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구토나 설사를 하게되면 피임약이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서 피임효과가 떨어질 수 있게 된다. 이때 피임약 복용을 계속하면서 포장이 끝날 때까지 다른 피임법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 주의사항 및 부작용 : 임신할 생각이 있으면 3-4개월 전에 끊어야 한다. 두통과 메스꺼림이 있고,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당뇨병 등의 호르몬성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임신부나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당뇨병, 고혈압, 간기능 장애, 겸상적혈구 빈혈 등이 있는 사람은 복용을 해서는 안된다.

먹는 피임약의 종류로는 쎄스로(가격 4,000), 미니보라(한국 쉐링, 가격 5,000), 마이보라(한국 쉐링, 가격 5,000), 머시론(한국오가논, 가격 6,000)이고 가격이 비쌀수록 호르몬 함량이 적어서 몸에 부담이 적다고 한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통해 복용해야한다.

4. 질외 사정

20대나 신혼 부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피임방법이라기보다 남성편의 주의적인 발상에 근거한 심리적인 방어이기 때문에 실패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아마 임신이 안 된 거라면 그 날이 '운좋게도' 배란일이 아니기 때문이거나 심각한 무정자증을 앓고 있는 남자일 수도 있다.

질외사정이 눈가리고 아웅인 이유는 사정(엄청난 정액의 방출)전에 이미 쿠퍼씨관에서 쿠퍼씨액이(정자가 살고 있다) 나와서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질외사정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 사정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극도의 긴장상태와 온갖의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조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페미돔

여성의 질 내부를 감싸줌으로써 여성 스스로가 임신과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페미돔! 부드러운 폴리우레탄이 재료로써 콘돔과 길이는 같지만 폭은 조금 넓다. 실리콘 윤활제가 한 겹 쌓여있고 양 끝에 유연한 고리가 달려 있다. 반경이 좁은 안쪽의 고리는 삽입이 쉽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바깥쪽의 큰 고리는 성교 중 페미돔이 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페미돔은 1회용으로 탐폰(질에 삽입하는 생리대)처럼 질 내부로 삽입할 수 있다. 페미돔은 콘돔처럼 남성의 발기가 필요하지 않아 성관계전에 삽입하면 된다. 사용법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 살정제

질안에 삽입하는 좌약으로 정자를 죽이면서 피임을 가능하게 한다. 섹스 바로 전에 삽입해야하고 약 30-40분의 동안 효력을 갖는다. 주로 기혼인 40대 아줌마들이 사용하고, 장기 사용을 할 경우 질에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다. 상품으로는 노원(한미약품, 가격 4,500)

5. 그 밖에 효과적인 피임을 위해 꼭 명심해야 할 것들

♣ 생리기간 중에는 섹스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 기간에도 임신이 가능하고 세균감염의 위험마저 있다. 생리기간에 자궁경부가 열려서 성기가 삽입되는 과정에서 자궁내부까지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

♣ 피임은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피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삽입성교를 절대 해선 안된다.

♣ 질외사정은 절대 피임이 아니다. 오히려 조루의 중요한 원인이다.

♣ 피임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야한다. 상대방의 일로 미루거나 해선 안된다. 본인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권유해야한다.

♣ 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부른다. 배란기에도 임신이 안 됐다는 몇백만분의 1의 희귀한 경험이 임신을 막아주진 않는다.

♣ 편의주의적인 자가진단의 오류(난 무정자증이야, 난 불임이야...) 때문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할 수 있다.

♣ 임신은 남의 일이라는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1 움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움은 다양한 예술적 끼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물론 여성주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재미없는 문화에 반기를 들고, 우리들 자신의 문화를 다른 여성들과 만들고 즐기고 싶은 이들과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실험 공간, 움을 함께 펼쳐가고 싶습니다.

2 여성주의 Hip-Hop 공동체 「I will」

I WILL은 여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억압적인 시선들에 대한 반기를 춤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춤추는 여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정기적인 연습과 공연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Hip-Hop과 여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춤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I WILLER가 될 충분한 자격을 지닌 사람입니다.「I WILL」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I WILLER와 함께 당신의 몸을 해방시켜 보세여.....^^ (http://www.freechal.com/iwill)

3 WANTED by 모반

수배 이유: 급격한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소중한 우리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런 정신 문화 유산인 '가부장제'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이 패거리는 이러한 가부장제의 권위에 '감히' 도전한답시고 차마 눈뜨고 봐 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들을 공개수배한다.

특징 : 여자답지 못하게 크게 웃어댄다. 자기들이 싫어하는 놈들이 있으면 여대생답지 못하게 온갖 점잖지 못한 비속어를 동원하며 까댄다. 남자한테 잘 보여 좋은 데 시집갈 궁리는 하지 않고 주제에 '아는 척' 하며 사회를 논한다.

명랑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들은 한시 바삐 수배되어 선도되어야 합니다. 의심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대 여성모임 wicca

4

wicca는 마녀라는 뜻이지요. 중세 마녀 재판 희생자들 중에는 약초와 병에 관한 지식이 많았던 여성들이 많았답니다. 요새로치자면 여의사들입니다.

wicca는 의대 내의 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모임입니다. 대부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일상을 낱낱이 해부하고 이를 다시 여성주의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더 나아가 의사 사회, 의료계 내의 가부장성을 바끄러뜨리고 여성 건강 지킴이가 되고자 하는 당찬 꿈도 꾼답니다.

*이리로 연락하세요.

레드:011-9618-3901 redbaba@hanmail.net / 자야:011-9069-0636

페미너리

5

Feminary는 여성학자치도서관으로 여성운동 진영 내에서 기존의 여성 운동의 결과물들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것뿐 만 아니라, 하나의 대중적인 여성 정보 운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여성학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가고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치 공간입니다.

Feminary는 논지당에서 여성학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여성학 커리 뱅크를 개발하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Feminary 소식지를 통해 여성학 관련 신간이나 새로운 커리 개발과 관련된 기사들을 실어 여성학에 관심있는 모든 연세학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 김백혜영(011-9049-8753) 이메일: feminary@dreamwiz.com

홈페이지: http://my.dreamwiz.com/feminary

두입술

6

두입술은 학내 여성자치언론입니다. 우리는 단지 유행처럼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는 여성문제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으로서의 '여성주의'를 고민하고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들,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는 그 곳에서 우리의 두 입술을 열려고 합니다. 침묵에서 소통으로, 그리고 자기것이 아닌 언어에 대한 반역으로 우리의 두입술은 계속 나불댈 것입니다.

zzanggaa@dreamwiz.com(짱가)입니다. 017-386-4830(열쭝)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7

beyond는 97년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준비하면서 모인 사람들을 시작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화장'과 '포르노'에 관한 두번의 포럼을 개최했고 98년에는 '성폭력 자치규약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폭력 자치규약 자료집'을 버전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이하 새터내규) 왜 필요한가?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오티와 새터는 새내기들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첫인상의 자리'이며, 4년간의 대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선배들, 동기들과 만나 친해질 수 있는 대학문화의 한 장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새터의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성폭력문제이다.

새터에 가게 되면 새내기들과 선배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선배들, 동기들과 친해지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 재미있는 게임들을 하거나 촌극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 단순히 '재미있고 즐겁게' 또는 '친해지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성폭력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과민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관계가 서먹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 때문에 그런 불편함들이나 불쾌함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다.

새터내규는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한문제제기를 함께 풀어가고 고쳐나갈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새터내규가 존재함으로써 새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 새터에 참가자들이 좀더 민감해질 수 있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무심코 행해질 수 있는 새터에서의 성폭력을 어느정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새터문화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새터가 새내기들이 대학생활의 시작을 여는 문이듯이, 새터내규는 연세에서 성폭력의 뿌리를 뽑는 시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 새터 내규를 자율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단 하나의 규제 혹은 제재 수단으로 여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그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을 다같이 공유하며 새터 내규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시행해나가는 가운데 즐거운 새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

야홋~ 새내기 여성학 학교가 열린대!

새내기 여성학 학교가 열립니다.

여성학? 페미니즘?

'얼핏얼핏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

'여자들만 할 수 있는 건가?' 하시는 분들.

공부해보고 싶은데,, 뭘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
혹은 함께 공부할 사람을 찾는 분들.

이런 새내기을 위해
'새내기 여성학 학교' 가 열립니다.

3월 한달동안 매주 한번씩 세미나를 하구요.
매번 세미나마다 빠방한 뒤풀이는 당근이지요. ^^*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주저말고 **학관 3층 총여학생회실** 문을 두드리세요.
혹은 **2123-3645**로 전화하세요.

'별 수 있다' 총여학생회

함께한 이들

전체 기획단 : 쉬라 예감 무공 표름 달리
별수 있다 총여학생회 : 운 단단 용완 명희 술래